

‘22년 가계 평균소득 4.5% 늘고, 분배도 개선

- 근로(+6.4%)·사업(+4.0%)소득 증가 - 지니계수($\Delta 0.005$)·5분위배율($\Delta 0.07$ 배p) 개선
- 자산 감소($\Delta 3.7\%$)·부채 증가(+0.2%)

‘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Delta 3.7\%$ 감소하였다.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가운데,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부채 측면에서는 금융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하였다.

* 자산증가율(전년동기비, %): ('17)5.6 ('18)8.7 ('19)2.7 ('20)3.1 ('21)12.8 ('22)9.0 ('23) $\Delta 3.7$

** 부채증가율(전년동기비, %): ('17)5.7 ('18)8.0 ('19)3.2 ('20)4.4 ('21)6.6 ('22)4.2 ('23)0.2

‘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하였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Delta 4.8\%$)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하였다.

*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16)2.8 ('17)4.1 ('18)2.1 ('19)1.7 ('20)3.4 ('21)4.7 ('22)4.5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4,390<+6.4%> (사업)1,206<+4.0%> (공적이전)625< $\Delta 4.8\%$ >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도 개선되었다.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대비 하락($\Delta 0.005$)하였고, 소득 5분위배율도 5.76배로 전년대비 하락($\Delta 0.07$ 배p)하였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0.1%p)하였다.

* 분배지표('21→'22) : (지니계수)0.329→0.324 (5분위배율)5.83→5.76배 (상대적빈곤율)14.8→14.9%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원 (044-215-8570)
		담당자	사무관	권영현 (hyeon1122@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준성 (jsjohn@korea.kr)

1 주요 내용

* 소득·분배는 유량(flow) 개념으로 '22년을 기준으로 '21년과 비교
자산·부채는 저장(stock) 개념으로 '23.3월말을 기준으로 '22.3월말과 비교

(1) 가계금융

가구당 평균 자산·부채(만원, %, 전년대비)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가구의 순자산	
자산 52,727 (△3.7%)		부채 9,186 (+0.2%)		순자산(자산-부채) 43,540 (△4.5%)	
금융자산 12,587 (+3.8%)	실물자산 40,140 (△5.9%)	금융부채 6,694 (△1.6%)	임대보증금 2,492 (+5.3%)		

① [자산] 금융자산 증가에도 부동산價 하락 등 실물자산 감소로 △37% 감소

- 금융자산(비중 약 24%)은 1억 2,587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저축액(+5.5 → +3.4%)과 전·월세 보증금(+6.5 → +4.7%) 모두 전년대비 증가세 유지
- 실물자산(비중 약 76%)은 4억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
 - 실물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비중 약 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거주주택(비중 약 44%)이 전년대비 △10% 감소로 견인

② [부채]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 증가로 +0.2% 소폭 증가

- 금융부채(비중 약 74%)는 6,694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 주택가격 하락 및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으며 담보(△2.6%)·신용(△0.7%)·카드대출(△10.6%)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
- 임대보증금(비중 약 27%)은 2,492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
 - 1인가구 증가, 주택가격 하락 기대 등으로 전·월세 선호가 높아지고 거래량도 확대됨에 따라 증가세 유지

③ [순자산] 순자산 감소, 부채/자산 증가했으나 금융부채/저축액 감소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순자산 감소(△4.5%),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전년대비 상승(+0.7%p)
- 반면, 저축액 증가, 금융부채 감소에 따라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3.9%p)한 모습

[2] 가계소득 · 분배

① [소득] 근로 · 사업소득이 증가하며 모든 분위 소득 증가

-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전년대비 +4.5% 증가
 - '22년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근로(+6.4%)·사업(+4.0%)소득은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4.8%)은 감소
 - *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4.6 (서비스업)6.7,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 +81.6만명
- 1분위는 사업소득(△2.1%)·공적이전소득(△0.8%) 감소에도 근로소득(+13.9%) 등 주요 시장소득이 크게 증가하며 총소득은 +4.3% 증가**
 - * 1분위 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전체)4.3 (근로)13.9 (사업)△2.1 (공적이전)△0.8
 - ** 분위별 소득 증감률(전년비, %) : (1분위)4.3 (2)5.6 (3)5.4 (4)4.9 (5)3.8
 -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률(전년비, %) : (1분위)△0.8 (2)△8.0 (3)△3.8 (4)△7.3 (5)△3.8
-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은 증가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3.8%)은 감소하며 총소득이 +3.8% 증가
 - * 5분위 항목별 증감률(전년비, %): (전체)3.8 (근로)4.8 (사업)2.9 (공적이전)△3.8

② [분배]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 다만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는 소폭 하락

- 지니계수, 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개선,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악화
 - * 분배지표('21→'22): (지니계수)0.329→0.324 (5분위배율)5.83→5.76배 (상대적빈곤율)14.8→14.9%
-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
 - * 개선효과('21→'22): (지니계수)0.076→0.072 (5분위배율)5.69→5.23배p (상대적빈곤율)6.3→5.3%p

시장·가처분 소득 기준 분배지표 및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구분	'21년			'22년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지니계수	0.405	0.329	0.076	0.396	0.324	0.072
5분위배율	11.52배	5.83배	5.69배p	10.99배	5.76배	5.23배p
상대적빈곤율	21.1%	14.8%	6.3%p	20.2%	14.9%	5.3%p

2 평가 및 시사점

① [가계금융]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따라 순자산 감소, 단 現상황과 시차

- 자산·순자산 감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
 - 실물자산 추이는 이전 부동산 가격 폭등시 빠르게 증가한 이후,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전환에 따라 감소한 측면
 - * 부동산가격 및 실물자산 증가율(3月末기준, %): ('21)17.5/14.4 ('22)10.9/9.5 ('23)△13.5/△5.9
 - 순자산 감소에도, 실물자산이 제외된 금융부채/저축액 비율은 작년대비 하락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일부 개선된 측면
 - 기준시점인 '23.3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체감하는 가계금융 상황과 시차도 존재
 - *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23.3)118.7 (5)120.1 (7)121.7 (9)123.2
- ⇒ 부동산시장 연착륙 및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 지속

② [가계소득·분배] 시장 중심 소득·분배 개선, 정책노력 강화

- '22년 총소득은 경기·고용회복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6.4%)·사업소득(+4.0%) 등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증가(+4.5%)
 - * 전산업생산지수(전년비, %): (전산업)4.6 (서비스업)6.7,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 +81.6만명
 - 코로나 지원금 감소¹⁾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며 주요 분배지표²⁾도 개선
 - 1) '21년에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2년에는 지급되지 않음
 - 2) 지니계수 : ('21)0.329 → **(22)0.324**, 5분위배율(배) : ('21)5.83 → **(22)5.76**
- ⇒ 정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 경기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
 - 아울러, 내수·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

참 고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결과

1 가계 금융부문

(1) 자산 : 가구당 평균 5억 2,727만원(△3.7%)

○ 자산 = 금융자산 1억 2,587만원(+3.8%) + 실물자산 4억 140만원(△5.9%)

<종류별 자산규모>

(만원, %)	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 주택	거주주택 外	기타실물 자산
2022	54,772	12,126	8,548	3,577	42,646	40,355	25,496	14,858	2,292
2023	52,727	12,587	8,840	3,747	40,140	37,677	22,938	14,739	2,463
증감률	△3.7	3.8	3.4	4.7	△5.9	△6.6	△10.0	△0.8	7.5

(2) 부채 : 가구당 평균 9,186만원(+0.2%)

○ 부채 = 금융부채 6,694만원(△1.6%) + 임대보증금 2,492만원(+5.3%)

(만원)	부 채	금융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타	임대 보증금
전 체	9,186	6,694	5,241	1,001	63	389	2,492
연 령 대 별							
39세이하	9,937	8,510	6,507	1,530	34	439	1,427
40~49세	12,531	9,531	7,267	1,574	117	572	3,001
50~59세	10,715	7,644	5,970	1,142	86	446	3,071
60세이상	6,206	3,851	3,193	384	34	239	2,356
종 사 상 업 지 위 별							
상용근로자	11,360	8,286	6,497	1,314	42	433	3,074
임시·일용근로자	3,533	2,762	2,073	298	98	294	771
자영업자	12,097	9,588	7,505	1,438	71	575	2,509
기타(무직 등)	4,714	2,529	2,010	276	82	160	2,185

(3)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 (원리금상환 부담 정도) '부담스럽다' 67.6%('22년 대비 +3.2%p), '부담 없다'는 32.4%(△3.2%p)

○ (상환 가능성)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78.9%(+1.3%p),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5.5%(+0.8%p)

*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 15.6%(△2.0%p)

2 가계 복지부문

(1) 가구소득, 비소비지출 및 처분가능소득

□ (소득) '22년 평균소득은 6,76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 (원천별) 근로소득은 +6.4% 증가, 사업소득은 +4.0% 증가,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 사적이전소득은 +2.7% 증가

* 원천별 증감률(%): (근로) 6.4 (사업) 4.0 (재산) 2.5 (공적이전) △4.8 (사적이전) 2.7
구성비(%): (근로) 64.9 (사업) 17.8 (재산) 6.4 (공적이전) 9.2 (사적이전) 1.6

- (소득 분위별)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

* 분위별 소득증가율(%): (전체)4.5 (1)4.3 (2)5.6 (3)5.4 (4)4.9 (5)3.8

- (가구주 연령대별) 모든 연령층 소득 증가

*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30세 ↓)3.3 (30대)3.5 (40대)6.0 (50대)3.2 (60세 ↑)7.7

□ (비소비지출) 전년대비 +8.1% 증가한 1,280만원이며, 세금(+4.1%), 이자비용(+18.3%) 등이 주로 증가

* 항목별 증가율(%): (연금·사회보험) 8.2 (세금) 4.1 (이자) 18.3 (가구간 이전지출) 2.7
구성비(%): (연금·사회보험) 33.8 (세금) 32.5 (이자) 19.3 (가구간 이전지출) 11.0

□ (처분가능소득) '22년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2) 소득분배 지표(처분가능소득 기준) : 주요 분배지표 개선

□ (지니계수) 0.324로 '21년(0.329) 대비 △0.005 감소(개선)

- 근로연령층(18~65세)은 0.303으로 '21년(0.310) 대비 감소(△0.007)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3으로 '21년(0.378) 대비 증가(+0.005)

□ (5분위배율) 5.76배로 '21년(5.83배) 대비 △0.07배p 감소(개선)

- 근로연령층(18~65세)은 4.98배로 '21년(5.15배) 대비 감소(△0.17배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7.11배로 '21년(6.92배) 대비 증가(+0.19배p)

□ (상대적 빈곤율) 14.9%로 '21년(14.8%) 대비 +0.1%p 증가(악화)

- 근로연령층(18~65세)은 10.0%로 '21년(10.1%)과 감소(△0.1%p),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39.7%로 '21년(39.3%) 대비 증가(+0.4%p)